

보도시점 (인터넷) 2024.08.26.(월) 11:00      배 포 2024.08.26.(월) 08:00  
(지면) 2024.08.27.(화), 조간

# 어촌 빈집, 맞춤형 복지 시설로 탈바꿈

- ‘민관 협력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위해 민관이 함께 첫 맞손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어인을 위한 숙소 및 지역 고령자를 위한 돌봄하우스 조성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협력재단’)은 8월 27일(화) 오송 H호 호텔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 완도군(군수 신우철), 남해군(군수 장충남)과 함께 ‘민관 협력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처음으로 어촌의 빈집을 재활용하여 예비 귀어인의 숙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주택 등 어촌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사업 대상지는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민간기금
- 완도군에서는 연말부터 소안면 일대 빈집 3채를 리모델링하여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하우스와 출향민·예비 귀어인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이며, 남해군에서는 설천면과 고현면 일대의 빈집 3채를 활용하여 귀어 희망자 대상으로 귀어 교육 및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 협력재단 조태용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장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늘어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생활인구 유입이 확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붙임> 민관 협력 어촌 빈집재생 사업 개요

담당 부서	농어촌기금운영부	담당자	부 장 김병진 (02-368-8951)
배포 부서	홍보팀		팀 장 이 전 (010-2064-7651)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1 Strike Out!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1. 사업내용**

- (목 적)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인구 유입 확대
- (주요내용)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어인 숙소, 고령자 대상 돌봄하우스 운영 등을 위한 시설 조성
  - 완도군 : 소안면 일대 빈집 3채를 활용 귀어인 숙소 및 고령자 돌봄하우스 조성
  - 남해군 : 설천면·고현면 일대의 빈집 3채를 활용 예비 귀어인 대상 숙소 조성
- (출연규모) 500백만원(농어촌상생협력기금)
  - \* 기관별 출연규모(500백만원) : 부산항만공사(200백만원),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만공사(각 100백만원)

**2. MOU 체결 개요**

- 일시·장소 : '24.8.27(화), 14:00, 오송 H호텔
- 협약기관 : 해양수산부, 완도군, 남해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민관합동 어촌 빈집재생 사업 업무협약 참석자>

소속	직 위	성 명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	권순욱
완도군청	부군수	김현철
남해군청	부군수	김신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장	조태용
부산항만공사	운영부사장	홍성준
인천항만공사	경영부사장	김순철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부사장	홍상표
울산항만공사	경영부사장	이형락

- 주요내용 :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 (해양수산부)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홍보
  - (완도군·남해군) 사업 수행기관 참여, 빈집 정비, 사후관리
  - (4개 항만공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